

34년전 차량시위 찰흙으로 빚어 재연하고 고문·구타 장면 생생한 증언으로 들려준다

광주지역 마을 곳곳서 치러지는 5·18 이색행사

5·18민중항쟁 당시 차량 시위 모습이 찰흙 작품으로 재현되고, 5·18 피해당사자(유공자)들이 청소년들을 찾아가 80년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등 이색 행사들이 시민들을 찾아간다.

5·18 민중항쟁 34주년 기념행사가 광주 등지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행사는 마을별 행사를 대폭 늘려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이중 시민들의 직간접적인 참여가 돋보이는 이색 행사를 살펴본다.

◇34년전 차량시위 '그대로' =34년 전인 1980년 5월20일 광주시 금남로. 공수부대원들이 무고한 시민을 곤봉으로 무차별하게 내리쳤다. 소식을 전해지면서 시민

들은 격분했다. 시민은 '가자 도청으로'를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계엄군과 시민군 간 공방전이 이어졌다. 이날 오후 6시40분께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출발한 택시·시내버스 200대도 헤드 라이트를 켜 채 경적을 울리며 금남로로 향했다. 차량시위는 계엄군의 만행을 목격한 운전기사들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이날 차량시위는 이른바 '민주 기사의 날 차량 시위'라는 이름으로 알려지며 5월 항쟁의 최대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34년 전 역사적인 시위가 오는 17일 초·중·고등학교생과 가족들의 찰흙 작품으로 되살아난다. 이들은 광주 서석초등학교 체육관에 찰흙으로 택시(가로 15cm·세로 10cm)와 시내버스 조형물 등 200대를 직접

만든 뒤 아크릴 패널(acrylic panel)을 이용해 도로·건물·가로수·사람 모형까지 금남로 차량 시위 상황을 재현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5·18을 직접 겪은 부모 세대와 5·18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린 세대가 함께 그날을 기억하는 행사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5·18 경험담 들려주는 '사랑채·독' =친구가 계엄군의 대검에 찰려 숨진 것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 시위에 가담했다가 구타와 모진 고문을 당한 사람, 옥살이 등 5·18 피해 당사자들이 직접 청소년들을 상대로 증언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5·18 구속부상자회 회원 3명은 17일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이마트에서 자신들이 직접 겪은 5·18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5·18 목격담을 전해줄 이들은 5·18 구

속부상자회 광산지회 김정섭(58)·박시경(54)·정철(56)회원 등 3명. 이들은 5·18 당시 계엄군의 무차별한 폭력에 맞서 싸우다가 옥고를 치르거나 다친 이들이다.

김정섭씨는 이마트 벽면에 설치되는 5·18 당시 사진을 설명해 주면서 자신의 경험담을 전할 예정이다. 김씨는 5·18 당시 전남대 정문에서 계엄군이 친구들에게 고문을 가한 장면을 직접 목격한 뒤 시민군에 참여했다. 김씨는 계엄군에 맞서 싸우다가 연행돼 9개월간의 옥고를 치렀다.

김정섭씨는 "최근 '임을 위한 행진곡' 문제를 비롯한 일부 세력에 의한 5·18 역사왜곡 및 폄훼가 심각해, 단순히 5·18 얘기를 들려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5월의 의미와 정신을 담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임 행진곡' 제창 불허 대책 논의

5·18 민중항쟁 제34주년 기념행사위원회와 5월 관련단체 회원들이 13일 5·18 기념재단 사무실에서 정부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허에 따른 항의 표시 방법을 놓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5·18행사위, 기념식 불참 항의 표시 고심

'침묵시위' 놓고 결론 못내려

5·18 민중항쟁 34주년 기념행사위원회(이하 행사위)와 5월 관련단체가 5·18 기념식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항의 표시로 침묵시위여부에 대해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5·18 기념식 불참에 따른 별도의 5·18 기념식을 치르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선 최종 합의가 이뤄졌지만 항의 표시 방법을 놓고는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행사위 등은 13일 5·18 기념재단 사무실에서 보훈처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허에 따른 항의 표시 방법을 놓고 논의'를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들은 5·18 기념식 불참에 따른 별도의 5·18 기념식을 치르지 않겠다는 의견엔 최종 합의했다. 다만, 별도의 5·18 기념식을 하지 않은 대신 침묵시위를 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현재 이들 사이에선 5·18 기념식이 열리는 국립 5·18 민주묘지 앞 민주의 문 앞에서 마스크에 소복을 입고 침묵 또는 통곡 시위를 하자는 입장과 불참하는 선에서 끝나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4일 광주시 동구 계림동 한 음식점에서 조간담화를 하면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국가보훈처가 지난 12일 광주시에 보낸 34주년 기념식순에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제외하고 5월 관련단체 없이도 5·18 기념식을 치르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서 사실상 5월 관련단체의 최종 결정만 남은 셈이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직원 음주운전 사고 물의

광주 동부서장 대기 발령

경찰청은 세월호 참사 애도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빚은 광주 동부경찰서 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 책임을 물어 오윤수 동부서장을 대기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후임은 정경채 광주청 치안지도관이 맡게 됐다.

광주경찰청도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담당 직원 및 팀장, 지구대장 등에 대한 검찰 조사를 벌인 뒤 징계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30 해질 19:28
달출 18:57 달질 05:00

진도해상 '비'

흐린 가운데 비 오는 곳 있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흐림	15/22	보성	비	12/18
목포	흐림	15/20	순천	비	16/21
여수	비	17/20	영광	흐림	14/22
나주	흐림	13/22	진도	비	15/20
완도	비	15/19	전주	흐림	15/26
구례	흐림	13/21	군산	흐림	15/24
강진	비	14/20	남원	흐림	12/25
해남	비	15/20	축산도	흐림	14/18
장성	흐림	13/22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서해	남부	동~남동	0.5	북동~동	0.5
남해	서부	동~남동	0.5~1.0	북동~동	0.5~1.5
	남부	동~남동	0.5~1.0	북동~동	0.5~1.0
	서부	동~남동	0.5~1.5	동~남동	1.0~2.0

◇물때

		밀물		썰물	
목포		01:41	07:03		
		13:46	19:08		
여수		08:38	02:35		
		21:12	14:34		

◇주간 날씨

15(목)	16(금)	17(토)	18(일)	19(월)	20(화)	21(수)
14/25	11/26	13/27	13/26	13/26	14/25	13/26

◇생활지수

	식중독	70
	운동	50
	빨래	30

어린이집·유치원 엄마들도 '스승의 날' 부담되네

선물은 뭘로할까 어떻게 전달할까

인터넷 카페 '와글와글'

스승의 날(15일)을 앞두고 초·중·고등학교가 아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들마저 고민에 빠졌다.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선물을 해야 할지, 한다면 어떤 선물과 어느 정도 가격으로 해야 할지 선택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13일 광주·전남지역 영·유아 및 초·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엄마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A카페에서 '스승의 날 선물'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관련 게시물은 모두 130건이었다.

게시글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엄마인데, 선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된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남들 다 하는데 하지나 눈치가 보일 것 같고, 너무 부담스러운 선물을 했다가는 유별난 임의로 취급 돼 혹여 아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까닭이다.

한 학부모는 '유치원에서 2~3주 전에 스승의 날 선물 보내지 말라는 공문이 집으로 왔는데, 선물을 정말 안 해도 되겠느냐'고 고민을 적었다.

선물 종류와 가격이 얼마 정도면 좋겠느냐고 묻는 엄마들도 있었다.

한 엄마가 '유치원 교사고 미혼인데, 피부는 검은 편에 가까웠다. 어떤 선물이 좋겠느냐'라고 게시물을 올리자, '립글로우가 좋겠다'고 댓글을 달았다.

A카페에 오른 추천 선물로는 주로 케익·사탕·바나나·화장품·지갑 등이 많았으며, 가격대는 3~5만원 또는 5~10만원대가 주를 이뤘다. 또 선물은 담임교사만 줘야 하느냐, 아니면 원장이나 승합차 운전기사까지 줘야 하느냐는 질문도 많았다.

선물을 직접 전달해야 할지, 아니면 우편으로 보낼 것인지, 제3의 장소에서 만나 줘야 하는지를 놓고 고민하는 학부모도 있었다.

/이종형기자golee@kwangju.co.kr

나왔다! 조라고 부르기에 가까운 속살이 조동조동하고 부드러운 왕대구가 드디어 시판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왕노가리, 왕가리비, 맥터, 산낙지

(주)해감은 광주 상무병원 건너편에 해감 노가리호프 본점을 개업하였습니다.

와! 곁들이면 이것이 바로 **금상첨화!!**

가맹비가 따로없는 새로운 형식의 프랜차이즈 기업 (주)해감농수산에서 자신있게 견해드리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총판 및 체인점 문의
대표전화 : 1899-0618 (062) 654-0633
FAX : (062) 654-0644

농업회사법인 (주)해감농수산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635-21

www.yh-bus.com

예향 고속관광과 함께 떠나요!

회사 출 · 퇴근 버스임대 - 여행지 사전예약 단체여행 버스대절 - 최신버스 저렴한 가격 최상의 서비스 및 예약자 선물증정

예향 고속관광 YEHYANG TOUR

고객상담 및 예약센터 TEL.062.944.5775 FAX.062.944.5995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 805(혹석사거리)